



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1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KIA와 SK의 경기 6회초 1사 만루 상황에서 KIA 세번째 투수로 등판한 유동훈이 안치용에게 적시타를 맞은 후 개를 숙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무기력 KIA … 벼랑 끝 몰렸다

타선 4안타 침묵 SK에 0-2 완패 … 준PO 1승 2패

### 오늘 4차전 윤석민 선발투입 승부수

KIA의 포스트시즌 승리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4개의 안타를 때리는 데 그치며 0-2 영봉패를 당했다.

조범현 감독의 라인업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침체가 계속됐다.

11일 경기의 앞서 조 감독은 “앞에서 접수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타선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자신의 계획대로 앞선 두 경기에서 8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김선빈을 2번에서 7번으로 내렸다. 7번에 내려두었던

최희섭은 4번으로 끌어올렸다. 1·2차전 4번을 책임졌던 나지완은 이날 배팅증세를 보여 선발리인업에서 제외됐다.

2차전 솔로포를 기록했던 최희섭은 이날 팀의 안타 4개 중 2개를 책임지며 모처럼 4번 타자의 역할을 했지만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7번에 배치한 김선빈의 부진은 계속됐다.

최희섭은 “시즌 막바지에 3할을 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다. 욕심을 내다보니 심리적으로 쫓기고 벨트스도 흐트러졌다”며 “그 영향이 포스트 시즌에도 미치고 있다. 또 자꾸 안 되다 보니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더 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던 김선빈은 2회 SK

선발 고든의 초구를 공략해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2루수 앞 땅볼로 아웃됐다. 7회 그리고 1사 2-3루의 기회에서는 타석에 서지 못하고 대타 신종길과 교체됐다.

안치홍도 내야안타를 하나 기록하기는 했지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초반 기선 제압을 할 수 있었던 2회 말에도 번트실책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최희섭이 상대 포수의 실책으로 살아나간 2회말, 김상현의 불넷이 이어지면서 무사 1·2루의 절호의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타석에 들어선 안치홍은 번트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 안치홍이 때린 타구를 잡은 포수 정상호가 3루로 송구하면서 주자 최희섭이 아웃됐다. 타자주자 안치홍도 아

웃되면서 병살타가 되고 말았다. 안치홍은 1차전에서는 두 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팬들의 기습을 철렁이게 하는 등 공·수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초반 공략에 실패하면서 결국 6회 KIA 마운드가 먼저 무너졌다. KIA는 서재웅에 이어 6회 심동섭-유동훈-김진우를 투입하며 SK 타선 봉쇄에 나섰지만 안치홍의 적시타로 2점을 내줬다.

6회 2사 만루에 투입돼 위기를 막아냈던 김진우는 3과3분의 1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1승2패로 위기에 몰린 KIA는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12일 에이스 윤석민을 선발로 투입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린 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10482명의 관중이 찾았는데 그쳤다.

1만2500석의 관중석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2009년 10월10일 두산과 SK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부터 시작된 포스트 시즌 연속 매진 기록은 27경기에서 멈춰섰다.

KIA는 올 시즌 원정 경기서 총 112만 3999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며 8개 구단 최고의 관중 동원력을 과시한 인기 구단. 폐

### 표구하기 전쟁 속 관중 못채워

#### 예매 시스템 문제 … 무등경기장 PS 매진 기록 27경기서 ‘끝’

네트레이스에서도 19차례 흡 매진 사례를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해와 달리 모든 좌석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매를 진행했다. 예매 시작과 함께 준플레이오프 1~4차전 입장

권이 동이 나면서 표구하기 전쟁이 예상됐다. 하지만 입금 과정에서 취소표가 다량 발생한 것이다.

KBO 이진형 홍보팀장은 “이번 예매의 경우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금 결제로 예매가 됐던 표들의 최종 입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밥사이 예매표가 풀렸다”며 “매진이 됐다고 생각하고 경기장 방문을 포기한 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lumar 루마썬팅 | 3M 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  
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승용 5인기준 30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3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종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얼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평크 무상점검  
• 타이어암,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레이크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파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파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걱정 끝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 투마썬팅, 3M 코팅, 모비스썬팅
- 맥파이어스 광택,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인테리
- 자동차경비일체, 빛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 바닥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사리 일체

주) 순으로 늘어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5위인 UAE는 한국(29위)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대표팀 공격수 제狎 아와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UAE는 패승 의지를 다지며 미드필드부터 한국을 압박하며 날카로운 공격을 펴부었다.

한국은 UAE의 압박에 패스가 자주 끊겨 위험한 상황을 여러 차례 맞았다. 전반 3분 UAE의 수비아트 카테르가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한국 골문을 위협했고, 7분 뒤에는 미드필드 원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들어 박주영과 서정진의 호흡으로 공격의 물꼬를 냈다. 중원에서 UAE 진영으로 치고 들어가던 서정진은 오프사이드 핑지를 끊고 앞에 있던 박주영에게 기막힌 타이밍에 패스를 연결했다. 볼은 받은 박주영 앞에는 골키퍼밖에 없었고 박주영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한국은 13분 뒤 UAE 수비수의 자책골 덕에 2-0으로 앞서갔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후반 45분 역습에 나선 UAE는 아흐메드 주마 알 주나이비의 패스를 받은 마타르가 골 지역 정면에서 한국 골문에 만회골을 끌어올렸다. 한국은 비록 승리했지만 구자철이 다리를, 선제골을 넣은 박주영이 머리를 다쳐 교체되는 전력 손실을 보았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경기에서 박주영이 후반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